

장엄한 격변기를 떠밀어나가는 주인공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자기들의 생을 조국의 운명과 하나로 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크나큰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

그들의 모습을 대할 때면 우리 녀성들이 가정의 협소한 울타리안에서 변천하는 시대와 현실을 관망이나 하는 관조자가 아니라 장엄한 격변기를 떠밀어나가는 참다운 주인공이 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어려온다.

이 뜻깊은 가르치심에는 우리의 녀성들이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나가는 힘있는 력량이 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웅심깊은 뜻이 어려여있다.

돌이켜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혁명의 년대마다에는 남자들과 어깨나란히 애국의 길을 힘차게 걸으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해온 녀성들의 헌신과 수고가 깃들여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즐기찬 전진에 억센 힘을 더하여온 이 땅의 어머니들을 장엄한 격변기를 떠밀어나가는 참다운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그들은 조국과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당정책결사관철의 기풍과 자력갱생정신, 알뜰하고 간지며 꾸준하고 근면한 일본새를 발휘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제끼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실로 자랑스럽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손길아래 참된 녀성혁명가, 애국자로 살며 자식들을 위해, 당과 조국을 위해 무한히 헌신하는 어머니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이 배가되고 우리의 생활 또한 그리도 아름다운것 아니랴.